



MBC 특별생방송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케이크 속에 담긴 따뜻한 정(情)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MBC 특별생방송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에 (사)대한제과협회가 참여해 훈훈한 이웃 사랑에 동참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시아 공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가장 추운 날씨로 기록된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3부 순서를 마련해 불우이웃에게 케이크와 김장 김치를 즉석에서 만들어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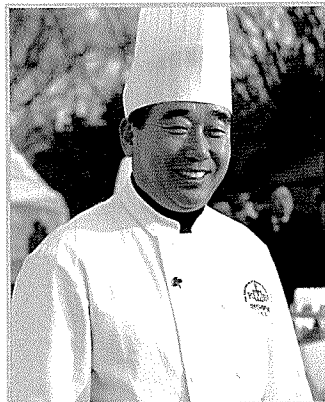
(사)대한제과협회는 CJ(주) 푸레쥬르에서 제공한 케이크 300개와 대형 케이크 2개를 마련해 이날 현장에서 만든 케이크를 모두 복지원과 고아원에 기증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기술지도위원, 강동송파지회 회원,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회원 등이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케이크 장식과 대형 4단 케이크를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1부에서는 연예인과 함께하는 케이크 데코레이션과 김영모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의 인터뷰 장면을 방영했고, 2부와 3부에서도 제품 제작 장면을 비롯한 취재가 이어져 제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모 회장, 조병천 수석 부회장과 이남호 사무총장, 안창현 기술지도위원장 등 협회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일하는 제과인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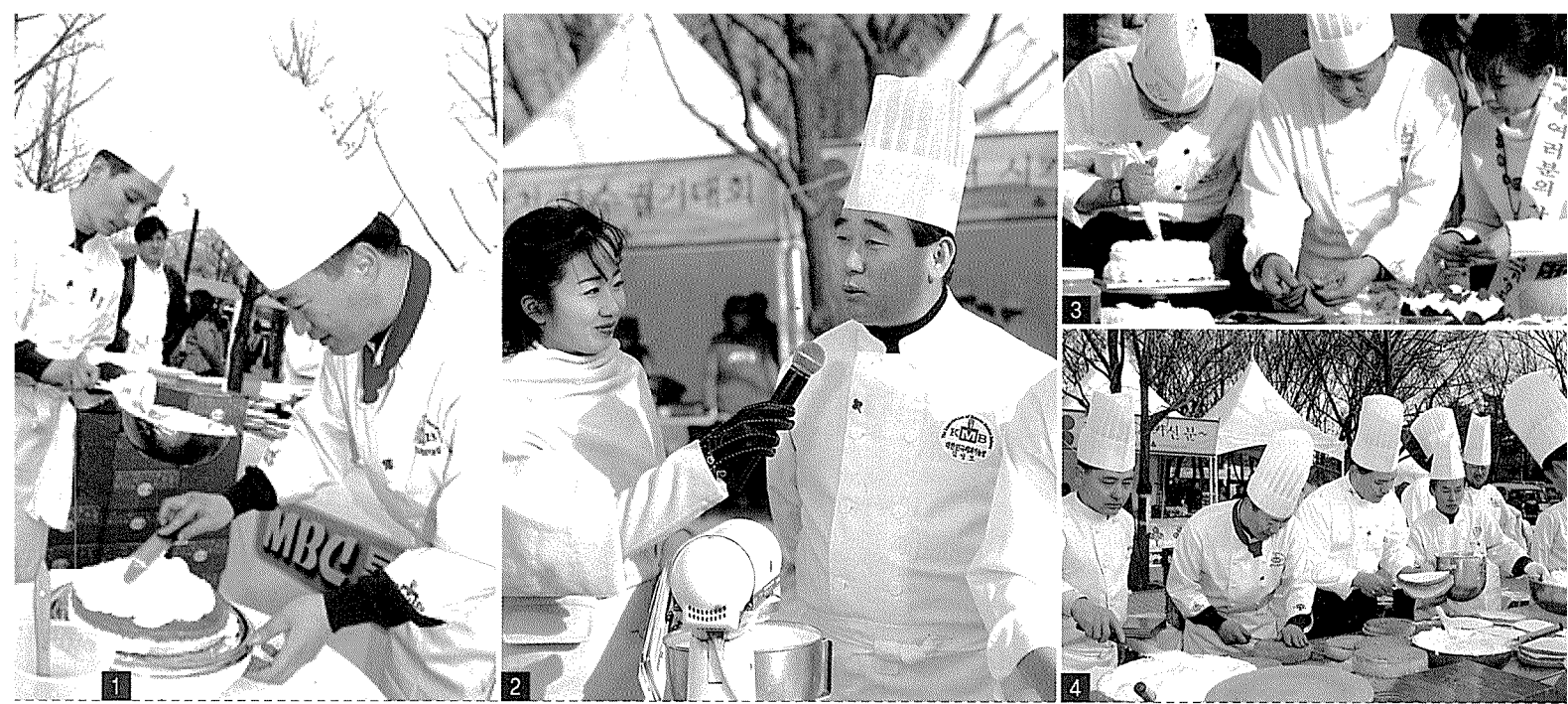
한편 먹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원들이 현장에서 담근 만8천 포기 김장 김치 역시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이번 MBC의 특별생방송은 불우한 이웃과 한해를 마무리 짓고 대한제과협회의 봉사활동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B**

글·허윤정 기자 사진·안성철, 박성일, 김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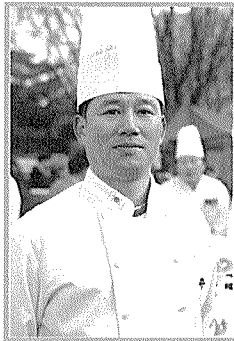
김영모 대한제과협회 회장

“그동안 제과인들이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훈훈한 미담은 제대로 알려졌을 때 그 의미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MBC와 함께 한 이번 행사는 대한제과협회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협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의 지회, 지부를 통해 ‘베이커리 푸드뱅크(Bakery Food Bank)’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봉사로서 이어져 각 지역의 불우 이웃에게 빵과 과자를 나누어 주는 협회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생방송 3시간의 이모저모

- ① 대한제과제빵학원에서 대형 케이크 제작을 위해 오병호 원장과 학원 강사가 함께 참여했다.
- ②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이 MBC 방송을 통해 이번 기획방송에 동참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협회 위상을 세우고 선행을 배물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였다.
- ③ 가수 진미령 씨가 프로그램 1부에서 직접 생크림 케이크를 장식하고 인터뷰하는 모습. 이날 연예인이 대거 참여해 불우이웃에 대한 온정을 함께 전했다.
- ④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봉사하는 협회 관계자들.



안창현 기술지도위원장

“케이크를 만들면서 몸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이번 행사가 제과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일 바쁜 시기이지만 시간을 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각 지회, 지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계획했으면 합니다. 첫 진행이었던 만큼 미흡했던 부분도 눈에 띄었지만 앞으로 이를 보완해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낌없는 도움을 준 강동송파지회



도용후 강동송파지회 지회장

“송파구에서 열린 행사라는 사실 이외에도 연말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기쁜 마음으로 진행을 도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기분 좋게 일한 지회 회원들과 사무국장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동송파지회에서 그동안 양로원과 복지원 등에 좋은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이웃을 돕는 일이라면 지역을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